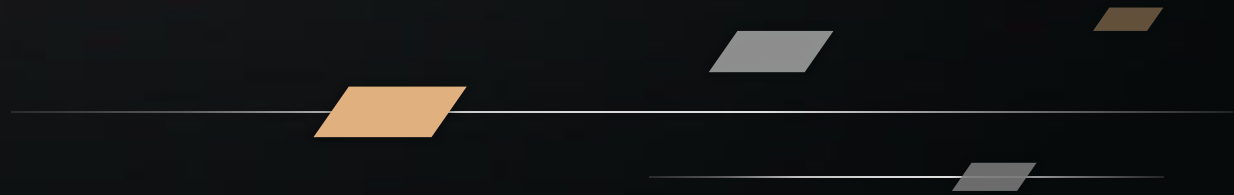


올림픽과 여성

한국 여성 올림픽언 기억의 역사화

천호준(우석대학교)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사회적 기억과 역사

3

한국 여성 올림피언
기억의 역사화

4

나가는 말



들어가는 말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 소개 / 비전 및 주요 업무 / 토대연구

01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 소개

스포츠 현장의 기억문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실제적 연구를 통해서
스포츠의 인문, 사회적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보급하고 확산

Lo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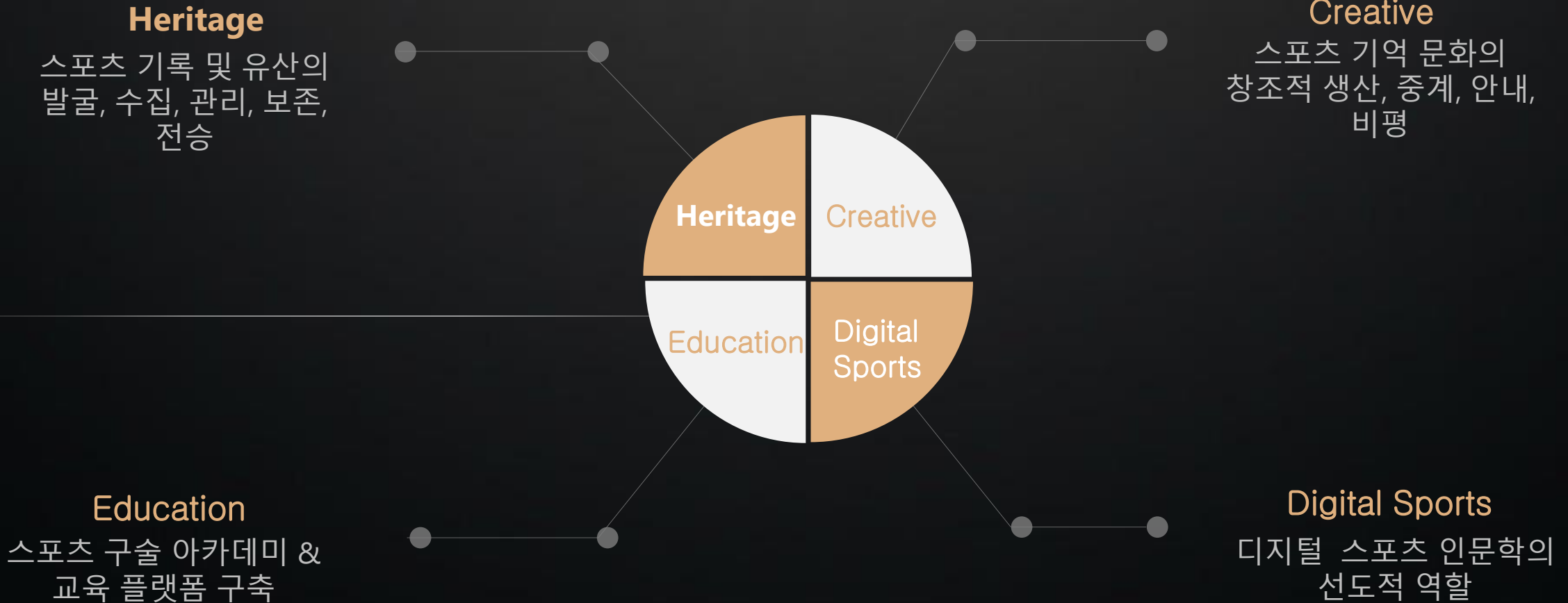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
Sport Memory Culture Institute



02 비전 및 주요 업무

스포츠 기록 및 유산의 전승을 통한 한국 사회의 스포츠 기억 문화조성



한국 올림픽의 사회적 기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DB구축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5년 인문사회분야
토대연구사업
『한국 올림픽의 사회적 기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DB구축』

2015.09 ~ 2018.08
3년 6억원

Step 1

기초연구단계

이론연구
사례조사

Step 2

자료수집단계

구술채록(하계, 동계 올림픽 메달리스트 100여명)
자료수집

Step 3

DB구축단계

DB구축
성과확산

한국 여성 올림픽 메달리스트



여자 배구 (1976 몬트리올 올림픽)			
정순옥	조혜정	유경화	유정혜
박미금	변경자	장혜숙	이순옥
여자 농구 (1984 LA 올림픽)			
박찬숙	김은숙	이형숙	성정아
김영희	김화순		
탁구 (1988 서울 올림픽)			
양영자			
태권도 (1988 서울 올림픽)			
김소영			
배드민턴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정소영	황혜영	길영아	
유도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김미정			
태권도 (2000 시드니 올림픽)			
이선희			
펜싱 (2012 런던 올림픽)			
신아람	김지연		
양궁 (2012 런던 올림픽)			
최현주			
쇼트트랙 (1994 릴리하메르 동계 올림픽)			
원혜경	김소희	전이경	
쇼트트랙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최은경	강윤미	진선유	전다혜
사격 (2008 베이징 패럴림픽)			
이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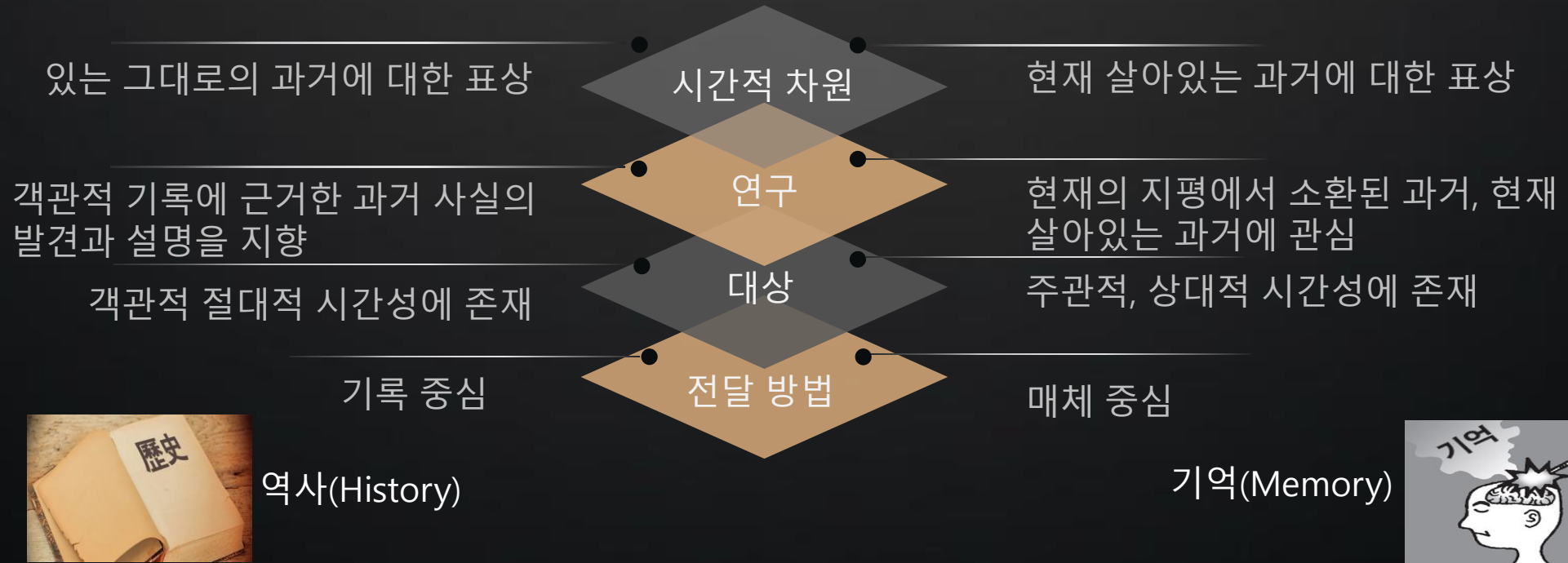
한국
여성 올림픽 선수
32 명



사회적 기억과 역사

역사와 기억 / 사회적 기억이란? / 사회적 기억의 역사화를 통한 파생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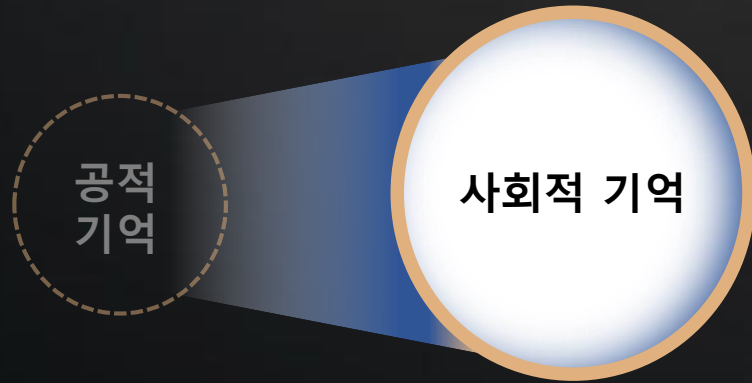
01 역사와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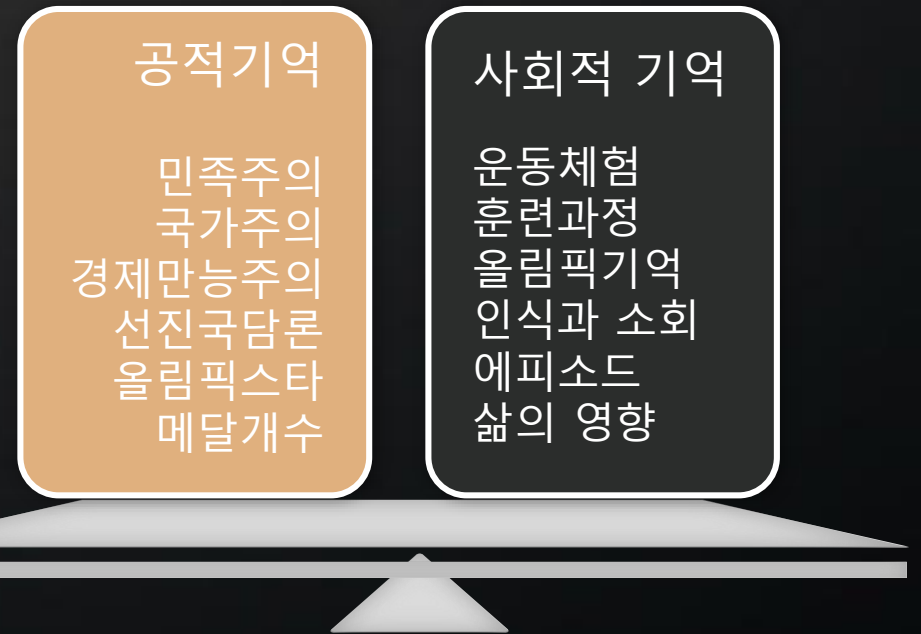
- 역사와 기억의 관계가 항상 이분법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님
- 기억이 물적인 텍스트로 전환된다면 역사적 시간의 영역으로 편입 가능
- **역사는 대중들의 기억으로 전환되고 기억은 엄밀한 고증에 의해 역사에 편입**

02 사회적 기억이란?

사회적 기억



올림픽의 공적기억과 사회적 기억



공적기억과 함께 한국 근현대 올림픽 역사의 주요 주제에 관한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기억을 다룬 기록을 후대에 함께 전승하는 것은 올림픽 역사의 균형적인 시각을 도모

03 사회적 기억의 역사화를 통한 파생가치

학문적, 사회적 기여



학문적 기여

- 공적 기록의 보완
- 결락 기록의 보충
- 사료 활용 및 관리 분야 발전
- 후속 연구의 양산 유도

사회적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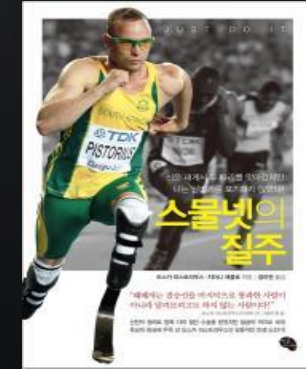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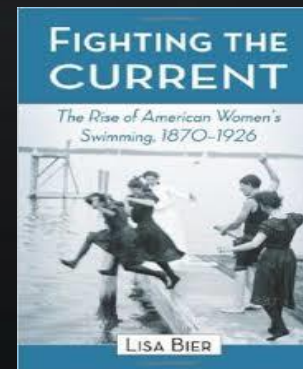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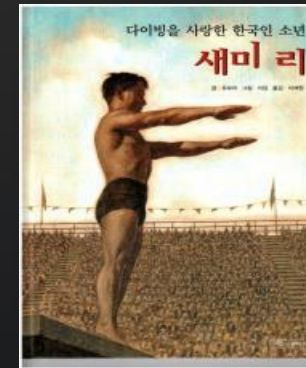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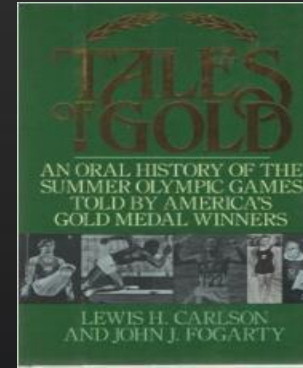
- 올림픽의 사회적 기억 공유로 균형 있는 역사인식 제고
- 체육계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
- 다양한 파생가치 창출

03 사회적 기억의 역사화를 통한 파생가치

MOVIE



BOOK



사회적 기억의 역사화를 통한 양질의 교육 및 문화 산업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여 다양한 파생 가치 창출



한국 여성 올림피언 기억의 역사화

개요/ 올림픽 참가 이전 기억의 역사화 / 올림픽 참가 기간 기억의 역사화 / 올림픽 참가 이후 기억의 역사화 / 결론

01 개요

- 올림픽 구술사를 통한 올림픽 기억의 역사화
: 1976 몬트리올 올림픽대회 배구 동메달 리스트들을 중심으로(천호준, 2014)

연구목적	국내에서 구기 종목 사상 최초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대회의 여자 배구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배구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 경험을 포착한 구술 기록을 토대로 이들의 기억을 체계적으로 역사화 하는 것
연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림픽대회 참가 이전의 기억 중 인기 스포츠로서의 배구 인식과 지도자에 대한 기억의 역사화- 올림픽 대회 참가 기간의 기억 중 개회식 및 폐회식과 생애 최고의 경쟁에 대한 기억의 역사화- 올림픽대회 참가 이후의 기억 중 국위선양 및 보상과 소회에 대한 기억의 역사화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3월부터 8월까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배구 경기대회의 참가자 8명 구술 채록- 분석방법 → 재구성적 교차분석(Reconstructive cross-analysis), 서사분석(Narrative analysis)- 구술 내용의 재조직과 문헌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토대로 이들을 역사화 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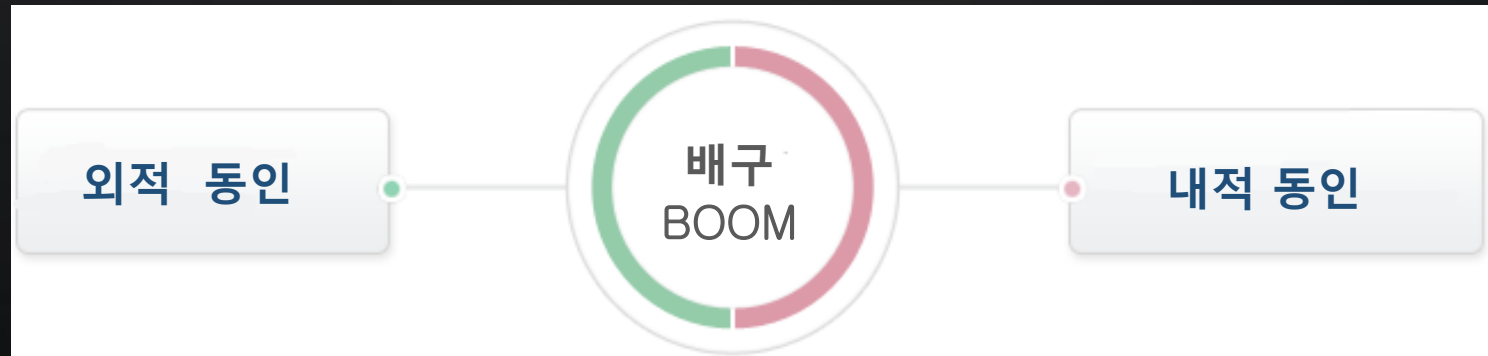
02 올림픽 참가 이전 기억의 역사화

1. 인기스포츠로서의 배구

1970년대 한국 배구

- 배구강국 대한민국
- 1976년 동메달
→ 구기종목 첫 메달

- 배구의 저변확대
- 생활체육으로의 보급
- 9인제 배구의 부활



정치적 배경,
정부의 지원, 미디어 등



배구의 특성, 스타플레이어,
대한배구협회의 지원

1970년대 한국 배구 붐의 문화사적 고찰(김지훈, 2008)
- 외적 동인과 내적 동인이 어우러진 결과

02 올림픽 참가 이전 기억의 역사화



그러나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대회 여자 배구 동메달 리스트들은 김지훈(2008)이 제시한 외적 동인 중 유신정권하에서 단체종목을 육성해 배구 붐이 발생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의 기억을 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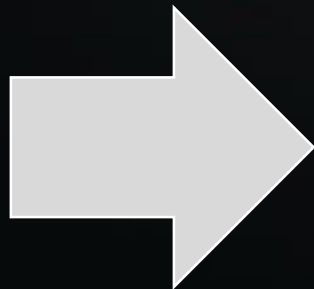
02 올림픽 참가 이전 기억의 역사화

1. 인기스포츠로서의 배구

여자배구가 여자농구를 훨씬 추월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그 때 당시 우리 멤버들 중에서 미인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술자 E)

배구선수들이 다 미인이었어. 다 예쁘고 키도 크고, 입은 유니폼도 지금보다는 더
짧았어요. 하의도 지금보다 더 짧았고 상의도 더 야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자배구
시합하고 남자배구 시합을 하지만 이 시기에는 남자배구하고 여자배구를 했지요.
(구술자 B)

예 당시 복장이 좀 야했습니다. 상의는 민소매고 하의도 짧아서 배꼽도 툭툭 보이고 그래서
여자 팬들보다 남자 팬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구술자 D)



유신정권의 단체종목의 육성 속에서 배구 붐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다수의 구술자들의 기억에 의하면 이 시기 배구 경기장에서의 관전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억압된 대중문화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02 올림픽 참가 이전 기억의 역사화

1. 인기스포츠로서의 배구

구술자의 또 다른 의견 : 국제대회의 선전도 배구 붐의 내적동인으로 기억

그때는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했을 때 선배 언니들이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거든요. 당시 많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언니들 때문에 배구가 인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술자 A)

이전 대회에서 우리가 지고 이기고 했어도 1975년에 개최된 몬트리올 올림픽 프레올림픽에서는 우리가 다 이겼거든요 다 이기고 전승으로 우승했으니까 ~~~ 이런 경기력이 당시 배구의 인기를 불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구술자 C)



자신의 노력 : 스타플레이어에 기인한 배구 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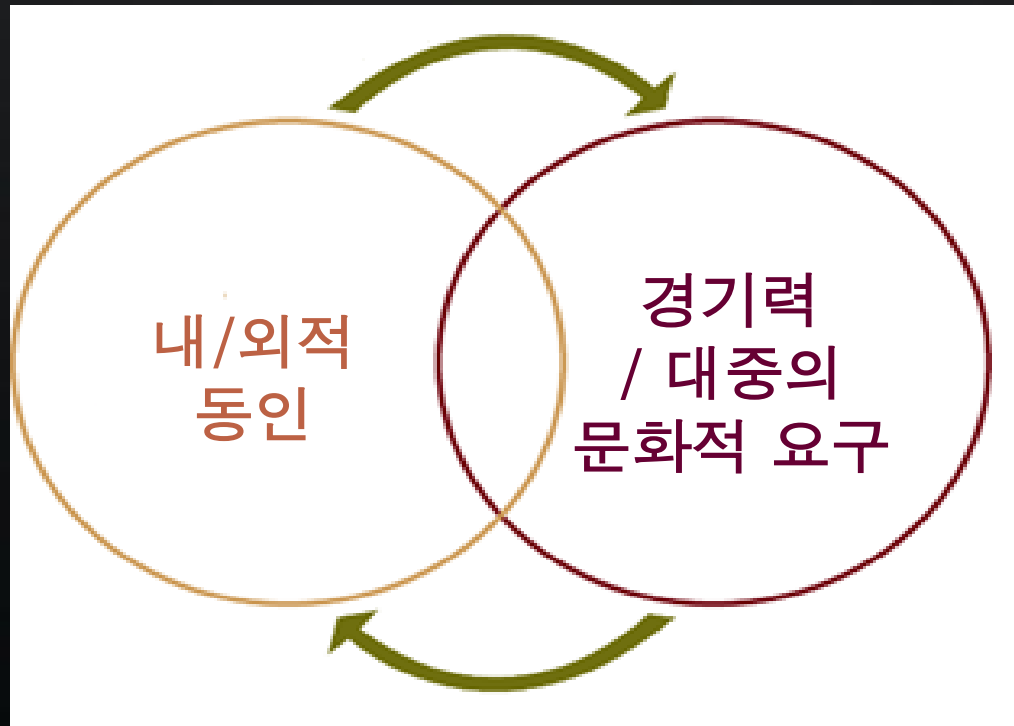
당시 배구가 인기가 있었던 건 스타선수가 매년 배출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 어느 스포츠 이던지 스타가 있어야지 팬들이 그 스타를 좋아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경기를 좋아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스타선수들이 배출되지 못했던 이유가 배구 인기가 시들어 갔던 이유인 것 같아요. (구술자 C)

02 올림픽 참가 이전 기억의 역사화

1. 인기스포츠로서의 배구

70's 배구의 인기비결

김지훈(2008)의 내적 /
외적 동인



국제대회의 선전 및 스타플레이어,
억압된 대중문화를 해소시키는 장

02 올림픽 참가 이전 기억의 역사화

2. 지도자의 인식

다이마쓰 히로부미(大松博文)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의 여자배구팀 감독으로 우승함

1970년 초기부터 한국 여자배구 지도에 관심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여자배구팀의 강화훈련을 담당

혹독한 강화 훈련 스타일로 유명

다이마쓰의 훈련방법은 여자로서는 도저히 견뎌내지 못할 만큼 혹독한 것이었다. "나를 따르는 선수들은 금메달이다. 그렇지 못한 선수는 빨리 코트를 떠나라"고 외치며 고된 훈련만이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이마쓰의 고정관념은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니었고, 메달에 대한 집념이 강했던 군 출신 이낙선 회장도 이런 지옥훈련을 목인했다(스포츠조선, 2005. 5. 4).



02 올림픽 참가 이전 기억의 역사화

2. 지도자의 인식

다이마쓰 히로부미(大松博文)

→ 박인실 선수의 팀 무단이탈 관련 기사

28일 배구협회는 몬트리올 올림픽 파견 여자대표팀의 에이스 박인실(24)를 제명 처분했다. 박인실은 태릉선수촌에서 **강화훈련**을 받아오다가 25일 운동이 하기 싫어졌다면서 무단외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배구협회 선수강화위원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것이다(조선일보, 1976. 4. 49).



02 올림픽 참가 이전 기억의 역사화

2. 지도자의 인식

다이마쓰 히로부미(大松博文)

대부분의 문헌자료에서 다이마쓰의 비인간적인 훈련방식에 대한 부정적 기록
그러나 76년 몬트리올 메달리스트들은 이와는 다른 기억을 전달함

다이마쓰 감독님은 하면 된다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도전케 하시는 분이예요
그분이 그래 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감독이나 코치들한테는 감히 상상도 못할 훈련을
우리한테 시키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니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쓴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정신을 심어 주는 분이예요. 그분이. (구술자 G)

다이마쓰 선생님은 하드트레이닝을 시켰지만 한국 여자배구가 세계의 배구 역사에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은 그분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본 분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여자배구가 세계무대에 한걸음 도달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마련했다고
생각해요. 그 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그 좌우명이 될 만큼의
강한 메시지를 남긴 것이 있는데 “하면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손수 “하면 된다” 라는 글을 붓글씨로 써서 저희 여자 선수들한테 주셨습니다. 저는
다이마쓰 선생님이 한국 여자 배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구술자 E)



02 올림픽 참가 이전 기억의 역사화

2. 지도자의 인식

다이마쓰 히로부미(大松博文)

대부분의 문헌자료에서 다이마쓰의 비인간적인 훈련방식에 대한 부정적 기록
그러나 76년 몬트리올 메달리스트들은 이와는 다른 기억을 전달함

그러니까 다이마쓰 선생님은 운동선수는 근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진짜 끈기가 있게 모든 일을 하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떠나서 모든 일에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하면 한 우물을 파면 성취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구술자 D)

저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은 다이마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분은 배구의 철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배구공은 열여덟 개의 생명이 없는 가족으로 붙여져 있지만 이 공은 살아있다. 너의 염원을 담으면 이 공은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구술자 H)



02 올림픽 참가 이전 기억의 역사화

2. 지도자의 인식

다이마쓰 히로부미(大松博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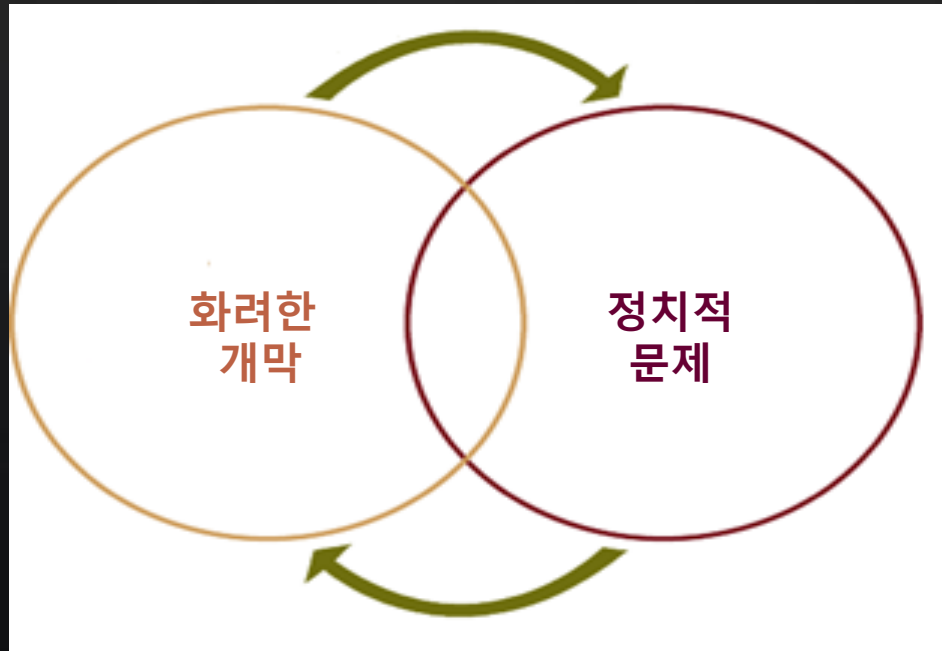


문헌자료와 구술 내용의 상이함 존재...
다이마쓰 히로부미라는 지도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업적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

03 올림픽 참가 기간 기억의 역사화

1. 개회식과 폐회식

화합 & 평화



Montréal 1976

rank	flag	nation	gold	silver	bronze
1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49	41	35
2		German Democratic Republic	40	25	25
3		United States of America	34	35	25
4		Federal Republic of Germany	10	12	17
5		Japan	9	6	10
6		Poland	7	6	13
7		People's Republic of Bulgaria	6	9	7
8		Republic of Cuba	6	4	3
9		Socialist Republic of Romania	4	9	14
10		Republic of Hungary	4	5	13
19		Republic of Korea	1	1	4

중국과 대만
인종차별

03 올림픽 참가 기간 기억의 역사화

1. 개회식과 폐회식

개회식 : 올림픽 개회식은 한국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였음을 시사하는 기사와 구술 내용

신문기사

올림픽 참가사상 첫 금메달 획득의 집념을 안은 72명의 한국선수단은 필승의 상징인 태극기를 필두로 22번째로 입장 7만 관중의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으며 동쪽 스탠드에 자리 잡고 대형 태극기 등을 휘날리며 ‘코리아’를 외치는 1백여 한국대사관 및 교민들의 따뜻한 환영에 목례로 답례했다(매일경제, 1976. 7. 19).

구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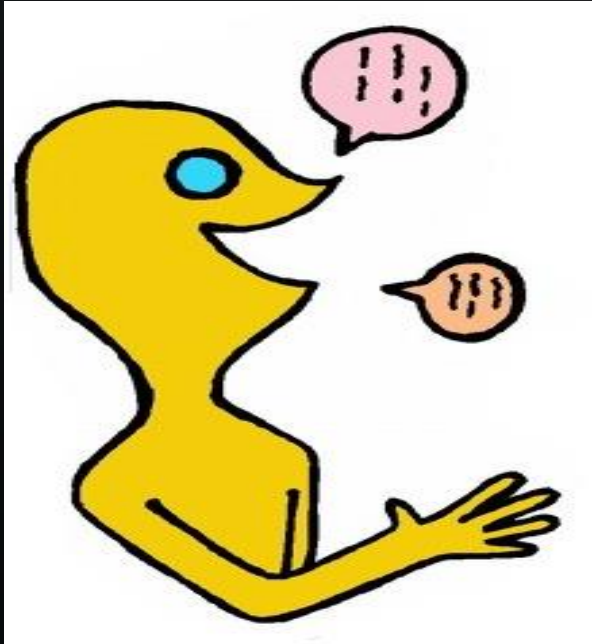
개·폐회식은 한국을 알리는 목적에 의미를 많이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임원진들이 우리에게 많이 강요를 했습니다. 가슴을 펴고 똑바로 걸고 고개 숙이지 말라는 등이었어요. 운동선수 이전에 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생각을 들게 했지요.

<구술자 E>

03 올림픽 참가 기간 기억의 역사화

1. 개회식과 폐회식

개회식



올림픽 개회식을 국위 선양의 계기로 생각했던 사람들과 달리 여자 배구 선수들은 개회식 그 자체를 즐기고, 경기를 준비하였다.

개회식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각 나라 선수들이 다 이렇게 입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마다 특색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어머 각 나라가 이런 문화가 다 있구나. 그런 거를 한눈에 보면서 스포츠라는 게 평화의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구술자 F]

03 올림픽 참가 기간 기억의 역사화

1. 개회식과 폐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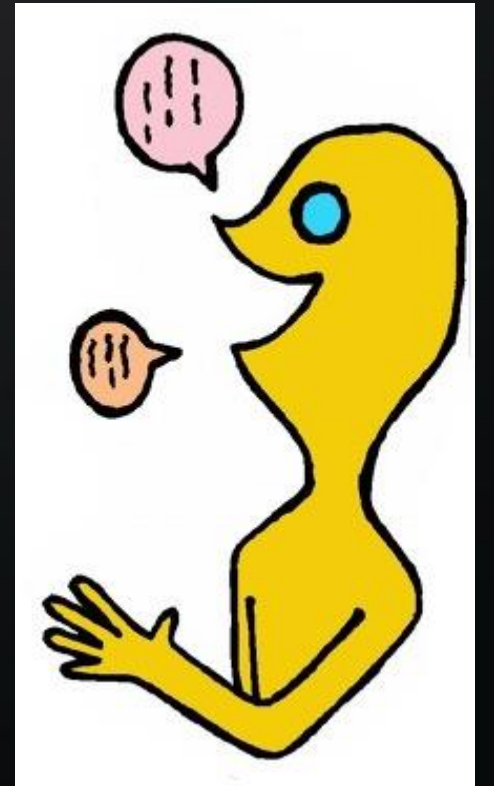
폐회식: 올림픽 사상 최초의 구기종목 메달(동) 획득으로 인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

폐회식이 기억에 남아요. 개회식 때는 전 선수가 나오지만 폐회식 때는 전 선수가 다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폐회식에는 메달을 딴 주요한 선수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폐회식 때가 훨씬 더 자유롭고 젊은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노는 즐거움의 장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폐회식 때가 그리고 고유의상이라는 것이 각 나라마다 네 그것도 친분감이 같고, 단복보다는 더 자유롭고 예쁘고 그랬었어요. [구술자 F]

폐회식 때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갈 때 **한복**을 다 맞춰 갔어요. 한복을 다 맞춰갔는데 한복색깔이 다 틀렸어요. 주황색, 초록색, 연두색, 빨간색, 노란색 등 그래서 12명이 다 폐회식 할 때 한복을 입고 들어가니까 외국선수들이 **원더풀 하면서 굉장히 환호**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웃하고 바꾸자고. 그런 기억이 제일 많이 남죠.

[구술자 F]



03 올림픽 참가 기간 기억의 역사화

2. 생애 최고의 경쟁

몬트리올 올림픽 : 세계 강호 8개 팀이 모두 참가한 최고의 경쟁의 장



문헌자료: 동메달의 요인

- 대한배구협회의 노력
- 다이마쓰 히로부미를 포함한 김한수 감독 및 전호관 코치의 능력

선수들의 땀과 노력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족

그러나 메달은 선수들의 노력과 기타 요인으로 획득한 것임



올림픽 최초로 구기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기뻐하는 여자 배구선수들 / 대한체육회

03 올림픽 참가 기간 기억의 역사화

2. 생애 최고의 경쟁

소련과의 예선전: 비록 지긴 했지만 굉장히 선전하였고, 선수들은 자신감과 의지를 가지게 됨



그때 그것이 감히 누구도 상상 할 수 없는 소련하고 대적하여 이길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뒤엎어 져서 진 상황이 어떻게 보면 3, 4위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계 최강의 팀 하고 이겨서 비록 졌지만 이길 수도 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동메달을 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구술자 E]

03 올림픽 참가 기간 기억의 역사화

2. 생애 최고의 경쟁

3-4위 전을 앞두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선수들의 노력

3, 4위전을 앞두고 선수들이 너무 **긴장**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칠판에다가 **이기자 대한 건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태릉선수촌에서 새벽마다 불렀던 노래인데. 너무 긴장을 해서 아무로 가사를 못 외웠어요. 그래서 선수대기실에서 제가 칠판에 가사를 쓰고 한 토막 한 토막씩 이렇게 해서 대충 거기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약간의 긴장감이 좀 풀렸어요. [구술자 H]

다른 선수들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3, 4위전에 나가기 전에 ○○○선수가 칠판에 **「이기자 대한 건아」** 라는 노래 가사를 적어 모두가 합창한 이후에 경기장에 나갔어요. [구술자 A]



헝가리를 3:1로 누르고 동메달을 획득하고 기뻐하는 여자배구대표팀

03 올림픽 참가 기간 기억의 역사화

2. 생애 최고의 경쟁

이기자 대한건아

모기윤 작사 / 김희조 작곡

8

9

13

17

21

25

1. 우 리 를 응 대 한 건 아 힘 를 하 고 용 감 하 다
2. 말 과 앞 볼 한 대 용 자 람 잘 알 달 씨 귀 보 세

기 관 원 전 우 리 용 사 당 할 자 가 그 누구 나

꼭 강 령 영 용 안 고 용 세 계 에 내 달 는 다 이 기
후 보 란 다

자 이 - 기 자 이 거 - 야 한 다 빛 내

자 빛 - 을 내 자 배 - 달 의 형 제 들

[1절]

우리들은 대한건아 늠름하고 용감하다
기른 힘과 닦은 기술 최후까지 펼쳐보세
조국의 영광 안고 온 세계에 내달는다
이기자 이기자 이겨야 한다
빛내자 빛을 내자 배달의 형제들

[2절]

맘과 맘을 한데 뭉쳐 정정당당 싸워보세
돌진하는 우리 용사 당할 자가 그 누구냐
개선의 태극기가 하늘 높이 휘날린다
이기자 이기자 이겨야 한다
빛내자 빛을 내자 배달의 형제들

03 올림픽 참가 기간 기억의 역사화

2. 생애 최고의 경쟁

작은 신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 운영

우리가 다른 팀과 달랐던 점은 한국만이 **더블세터**로 게임을 운영한 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경우에도 원 세터로 게임을 운영했습니다. 세계에서 더블 세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공 플레이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구술자 E]

외국 선수들은 신장이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는 **빠른 공격**에 치중했어요. 그래서 빠른 플레이 연습을 많이 했고 다른 외국팀과는 다른 **더블 세터 제도**를 운영했어요. 공격 능력이 있는 세터들 2명으로 경기를 운영하면 항상 공격이 3명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요. 원 세터로 운영할 때는 2명이 공격할 때가 있고 이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는 달리 **속공과 같은 빠른 플레이**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구술자 D]

시간차공격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속공의 경우 서양에 대비해 중국에서 속공을 만들었고 그거를 일본이 도입해 빛과 같이 빠르다는 의미를 지닌 ‘히까리’를 만들었고,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인 속공 공격으로 시간차 공격을 만들어 냈어요. 속공을 하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이 공격하는 기술 말입니다. [구술자 H]

03 올림픽 참가 기간 기억의 역사화

2. 생애 최고의 경쟁

경기 규칙의 개정



당시 배구 규칙에서는 블로킹에 맞은 것을 원 터치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 선수가 스파이크 한 것이 우리선수의 블로킹에 맞으면 우리한테는 다시 3번의 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당시 안테나의 위치도 우리한테 유리했어요. 원래 안테나는 공 한 개 정도의 여유를 두고 설치했는데 사이드라인하고 일직선상으로 설치하게 돼서 우리한테 유리했어요. 우리는 빠른 공격을 주로 하니까 공격 폭이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이 없었으니까 우리한테 유리했어요.

[구슬자 C]

새롭게 도입된 네트의 안테나가 우리 한국 여자 팀한테는 굉장히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우리 팀의 경우 속공 플레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안테나가 있어도 상관없지만 서양 선수들의 경우 힘에 의한 공격을 하는데 안테나를 건드릴까봐 걱정이 돼서 힘이 실린 공격을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구슬자 E]

신문기사

세계배구연맹은 제 8회 멕시코 세계배구선수권대회 기간에 있는 총회에서 현행 규칙을 일부 개정, 수비 때 블로킹을 해서 일어나는 원 터치 후에도 3번의 토스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이드 마크 20cm밖에 세워 놓은 안테나를 사이드마크 바로 위에서 세우기로 했다고 29일 한국선수단 박진관단장이 대한배구협회에 통고해 왔다. 이 개정 규칙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후부터 적용되는데 이 개정 규칙이 적용되면 공격의 폭이 좁아서 장신의 서구 배구에는 유리하나 단신의 동양배구에는 불리해 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경향신문, 1974. 10. 29)

04 올림픽 참가 이후 기억의 역사화

1. 국위선양과 보상: 보상

연금지급의 문제 - 12명 중 7명 만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음

'연금은 시합을 뚫 7인만이 아닌 엔트리에 포함된 12인 모두가 받아야 한다.' 는 의견

신문기사

아무튼 선수자신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던 현재로선 연금 규정을 고치기 전에는 12명 가운데 7명이거나 7명 이내로 연금수혜자를 추려내야 할 판이다. 체육회나 배구협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이렇다 할 공식적인 언급이 아직 없지만 배구협회로선 어차피 레귤러 6명에 1명을 추가해서 국민체육진흥재단에 추천해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어떤 이들은 「무슨 소리냐. 아무리 코트에 나서지 않았더라도 같이 갔으면 함께 싸운 것이다. 12명 모두에게 주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또 어떤 이는 「실전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들에게까지 주는 것은 논공행상이 아니다」 라고 열을 올린다. 이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어느 심리학자는 「7명으로 한정하는 경우 나머지 선수들에게 정신적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단체경기에서 중요한 팀워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도자들이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조선일보, 1976. 8. 11)

04 올림픽 참가 이후 기억의 역사화

1. 국위선양과 보상: 보상

연금지급의 문제



저희가 1976년도 그때 당시에 대한체육회장을 하는 김택수 회장님이 연금제도라는 것을 만드셔서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에 굉장히 희망적인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꼭 연금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었지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술자 E]

04 올림픽 참가 이후 기억의 역사화

1. 국위선양과 보상: 보상

연금지급의 문제 : 주전과 후보선수의 차등 지급

저희가 대표선수를 구성할 때에는 12명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운동할 때에는 베스트나 후보나 한마음 한 뜻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시합에 임하고 또한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땀을 때 우리한테는 베스트하고 후보하고 그러한 연금에 차별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베스트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후보하고 싶어서 후보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꼭 6명만 시합을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술자 G]

후보들은 그 반만 나오고 그게 상당히 저는 쇼크를 받았어요, ~~~시합은 여섯 명이 뛰었지만 그 뒤에서 항상 대기하면서 도와주는 후보들도 노력은 같은 것이니까요.
{구술자 E}



후보선수들의 구술

04 올림픽 참가 이후 기억의 역사화

1. 국위선양과 보상: 보상

연금지급의 문제 : 주전과 후보선수의 차등 지급



후보선수들의 구술

7명만 특별하게 고생을 하는 게 아니고, 후보나 베스트나 12명이 하나가 돼서 그 목표를 이뤄 나가는데 그 목표가 주어졌을 때 뭐 베스트 후보를 차등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후보가 되려고 할까요. 그래서 올림픽을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인제 베스트라고 그렇게 연금을 100%로 다주고, 후보라고 덜 주고 안주고 하는 일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술자 G]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이제 메달을 획득했을 때 베스트 멤버 똬 사람하고 뛰지 못한 사람의 차별이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게 자존심이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마음은 늘 슬펐어요. [구술자 E]

04 올림픽 참가 이후 기억의 역사화

1. 국위선양과 보상: 보상

연금지급의 문제

우리가 같이 함께 했던 12명한테 골고루 혜택을 줬으면 연금이라는 제도가 좋았을 텐데. 그거에 대한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송구스러움 미안한 마음은 세월이 많이 흘러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구슬자 E]



주전선수의 구슬

04 올림픽 참가 이후 기억의 역사화

1. 국위선양과 보상: 보상

연금지급의 문제 : 일시불 연금 지급의 문제



연금을 일시불로 받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때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시불로 그 때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81년도에 시집갔을 때 지금 남편이 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잘 사는 남편을 만나서 고생 안하고 살아서 그 목돈 그거 뭐 쓸 곳도 없고 난 안 탄다고 했어요. [구술자 F]

어느 날 두 번, 세 번 전화가 오는 겁니다. “연금이 곧 없어집니다. 일시불로 받으십시오.” 얼마를 줄 것인가도 이야기 하지도 않았어요. 국가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니 협조를 해달라고 하니깐.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거죠. ~~~ 그래서 그냥 그 말만 믿고 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겁니다.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올려주고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으로 끝났어요. 공청회 한 번 없이 나는 없어진다고 해서 받았는데 근데 십년이 지난 후에 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사람들 틈에서 이거 나는 국가에 사기를 당한 거 같다.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술자 H]

04 올림픽 참가 이후 기억의 역사화

1. 국위선양과 보상: 보상

1994년 당시 문화체육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인복지제도개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금제도를 폐지할 것을 잠정 의결하고 이전의 연금 수혜자들에게 일시불로 연금을 받을 것을 종용했던 것

1975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체육인 연금제도의 보완 및 개선 필요

04 올림픽 참가 이후 기억의 역사화

2. 소회

생애최고의 경쟁을 경험한 참가자들의 내러티브(Narrative)

→ 가치관의 변화, 삶의 원동력

내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올림픽에서 메달 그런 추억과 그런 나의 경력과 기억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흔 셋에 미국에 왔어요. 와서 세일즈로 밤 열시 열한시까지 뛰면서 어렵게 살아왔어요. 당시 어려웠던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을 통해 나의 목표 즉 메달을 획득했다는 추억이었습니다.
[구슬자 E]



04 올림픽 참가 이후 기억의 역사화

2. 소회

생애최고의 경쟁을 경험한 참가자들의 내러티브(Narrative)

→ 가치관의 변화, 삶의 원동력



다른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당시에 국가대표선수 되려고 연습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고 한 결과 국가대표 선수를 하고 나서 저의 삶의 가치관이 만들어졌어요. 어디를 가나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라서 다르다 지금도 저는 그 이름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나이가 오십대 후반으로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저는 그 당시 국가대표의 경험을 통해 노년의 삶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술자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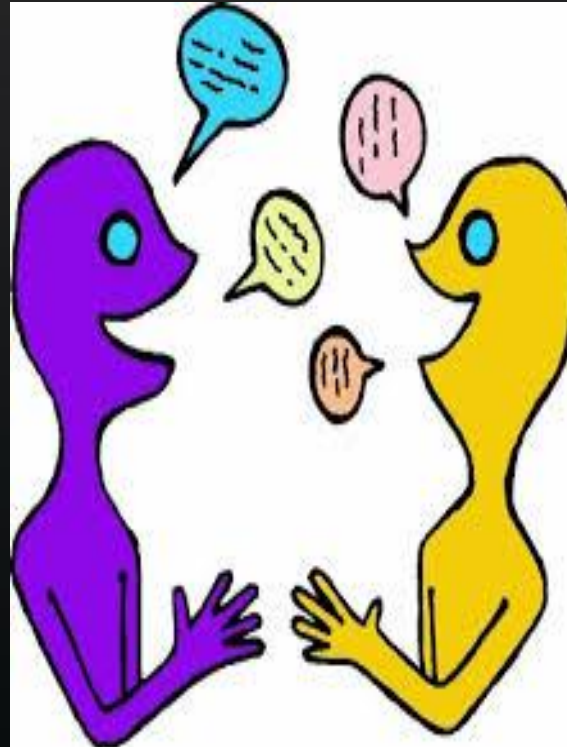
04 올림픽 참가 이후 기억의 역사화

2. 소회

생애최고의 경쟁을 경험한 참가자들의 내러티브(Narrative)

→ 운동선수, 일반인, 청소년들의 가치관 변화, 삶의 원동력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올림픽의 참가와 성과는 선수들에게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물론 정부에서도 메달 딴 사람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겠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운동선수 자신들이 단순히 성과만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 등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술자 H]



올림픽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얼마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운동은 하나의 삶이고 그 속에서 겪었던 많은 경험과 생각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구술자 E]

05 결론 및 제언

올림픽 참가 이전

- 인기스포츠로서의 배구의 역사화: 외적, 내적 동인이 원인
- 여성 올림픽의 기억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배구의 붐의 원인이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장의 역할, 국제대회의 선전으로 가능했음을 규명 → 기존 문헌자료를 보완
- 지도자의 인식의 역사화 → 지도자에 대한 새로운 조명의 필요성 제기

올림픽 참가 기간

- 개회식 및 폐회식의 기억 역사화
- 생애최고의 경쟁의 기억 역사화
동메달의 원인은 협회와 지도자의 수고와 함께 선수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경기 규칙을 반영한 전술 마련이 있었기에 가능 → 결락 기록을 보완

올림픽 참가 이후

- 국위선양과 보상, 소회의 기억을 역사화
- 선수 간 차등을 두 보상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 → 보상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정책 제언
- 선수들의 소회 → 집합적 기억의 역사화를 통한 내러티브 창출



나가는 말

나가는 말

올림픽은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이 집약되어 나타나는 현장

올림픽 현장에서 이룩해 온 한국 여성 올림픽의 성과는
그간 한국 스포츠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향후 한국 여성올림픽의 올림픽 체험 및 기억을 채록하고 이를 통해 한국 여성 체육 및 스포츠의
모습을 확인하는 작업을 확대한다면 한국 여성 체육의 올바른 인식 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 체육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 줄 것으로 판단

감사합니다.
